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부장·편집부국장

“여기 어디쯤 극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영화 보고 극장 바로 앞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먹었었지.” “이제는 모두 사라졌겠조.”

광주극장과 베토벤

금강중이 일어 극장 측에 물었다더니 맞은 편에 중국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며칠 후 극장을 찾았다 한 가게에서 ‘정통 중화요리, Since 1949’라는 흔적을 발견했을 땐 그 부부가 수십 년 만에 다시 광주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괜히 한번 상상해 봤다.

은편칼럼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우리나라는 정말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아니면 필수 의료와 공공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요즘 세간의 뜨거운 바람, 인공지능 ChatGTP 에게 물어보았다. 영약하게도 의사 수의 지역적인 편차가 있고 공공 의료와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다른 부분과 편차가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으로 핵심 논란을 피해 간다.

기고



박주정 광주 진남중 교장

30여 년 전 실업계 고등학교(지금의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가정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다. 어쩌다가 잘 사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근근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다. 치맛바람이 교직 사회의 부정적인 상징어로 오르내릴 때도 실업계 학교는 예외였다.

레트로 여행자들의 아지트

지난 1982년 문을 연 베토벤은 필하모니, 르네상스, 고전 등 클래식 음악감상실이 다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날 음악회는 관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재능 기부로 참여해 더 의미가 있었다.

‘오래된 공간’은 그 장소에 추억이 있는 이들에게만 소중한 게 아니다. 요즘에는 ‘레트로 여행자’의 발걸음이 어지러져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았다. 음악회 때, 나이 지긋한 손님들 사이에서 일순을 돌던 30대 김씨는 씨는 광주를 찾는 이들을 레트로 감성의 공간으로 안내한다.

의사 부족 국가

로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11만 2293명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8명이다. 서울이 3.45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2.63명), 대구(2.62명) 순이다. 경북과 충남은 각각 1.38명과 1.54명이다.

있고, 초등학교 아들에게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 왔다는 40대 부부도 있었다. 최근 광주시가 올해 첫 ‘1000만 관광객도시’ 진입을 선언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여행과 각종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그 어느 때보다 광주의 문화행사도 풍성하다.

광주 관광의 숨은 자산

관광객의 규모를 키우는 대형 행사들과 더불어 1년 365일 언제나 여행자를 끌어들이는, 다른 도시에서는 만날 수 없는 독특한 공간들은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문화자산이다. 오래된 공간에는 그 만큼의 사연이 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다른 이야기가 더해지며 장소에 살아 있는 곳으로 만든다.

社說

오늘 조합장 선거...농촌 살릴 일꾼 뽑아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 18개, 전남 182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 가운데 54개 조합은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광주 관광객 천만 시대’ 콘텐츠가 관건이다

광주시가 올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광주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 ‘광주 세계김치축제’ 등 시즌별 대표 축제를 확대한다. 양림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 이야기를 입혀 줄 새로운 관광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無等鼓

광복 78년이 됐지만 한일 관계는 여전히 과거를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했다. 과거 청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라는 3대 요건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시절 선물에 대한 단상

다만 그중에서 꼭 하나는 가지고 갔다.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시골에서 온 학생의 선물이었다. 한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자운영이라고 했더니 이 말을 기억했던가 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운영 눈에 가서 뿌리째 뽑아 스승의 날 선물로 가져왔다.

리 집은 학생, 학부모들이 편하게 드나든 편이었다. 학교 방문이 끝났으면 사연이 있으면 더 그랬다. 그런데 스승의 날 선물을 준 학생이나 학부모가 오면 난감했다. 나는 얼른 선수를 쳤다. “여보 여보, 잘 받았다고 하세요. 그대 잘 먹었다고 하세요. 꼭 그렇게 말하세요.”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